

불사리 모셔 부처님 대하듯 예배



석탑의 대표격인 불국사 석가탑.



안동 신세동 7층전탑.



국내 유일의 목탑 법주사 팔상전.



고려 금동대탑.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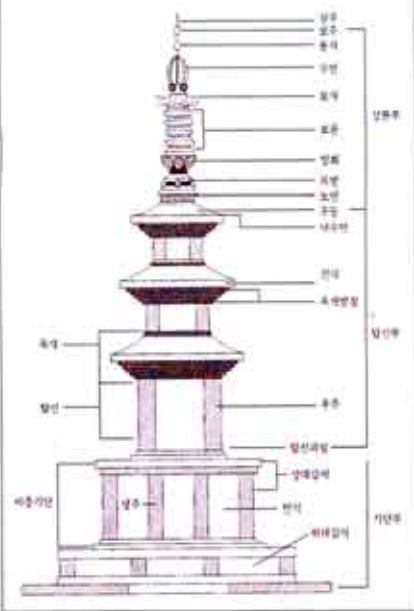
탑

간절한 원(願)을 담은 채 합장을 하고 석가모니불을 외며 탑 주위를 돈다. 탑돌이는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불자들 사이에 보편화된 신앙일뿐 아니라 비불자들도 소원을 비는 민속으로 정착됐다. 불사리와 경전, 불상 등을 봉안하고 우뚝 서 있는 탑은 불신(佛身)과 같이 여겨져 구원과 경배의 대상이 되어 왔다.

탑이란 '탑파(塔婆)', 즉 범어의 '스투파(stupa)' 또는 팔리어 '투우파(thupa)'의 음역에서 유래된 약칭으로, 사리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발생한 불교의 독특한 조형물이다. 석가모니 부처님 영안 후 인도의 장례법에 따라 화장의 예를 갖추어서 사리를 얻게 되었고 이 사리를 봉안하기 위해 구조물을 쌓은 것이 바로 탑파, 즉 불탑이다. 이때 세운 8기의 탑을 '근본팔탑'이라 한다. 이후 사리를 봉안해 탑을 세우는 일이 일반에 유행함에 따라 수량이 한정된 진신사리만으로는 수요를 맞추지 못해 진신사리가 아닌 법신사리(경전)사상이 생기게 되었다.

탑의 원형을 보여주는 스투파로는 기원전 3세기 에 이룩된 원분(圓墳)형태를 이루고 있는 인도 신치의 대탑이 유명하다.

석탑의 세부명칭



한 국의 탑은 세계 불교예술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 그 기원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에 이르는 삼국 말기의 시기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탑은 그 소재에 따라 목탑, 석탑, 전탑 등으로 나뉘며, 대체로 중국은 벽돌로써, 일본은 목재로써, 우리나라는 석재로 탑을 조성한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를 '석탑의 나라'라 부르는 것도 현존하는 탑 거의 모두가 화강석

요즘 경전·다라니 등도 봉안 한국은 '석탑의 나라'로 알려져 탑돌이 남녀노소 민속 정착

을 재료로 한 석탑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탑의 발생과 그 계보의 변천과정은 목탑, 목탑의 양식을 본받은 전탑, 목탑과 전탑의 두 양식을 갖춘 석탑의 순서로 양식이 정립돼 왔다.

■ 목탑(木塔)

우리나라 초기 탑은 목탑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세기 말부터 건립되기 시작한 목탑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은 물론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와 조선조까지 계속되었다. 목탑은 다른 건축과는 달리 수직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고도의 건축 기술이 없이는 건립이 불가능하다.

특히 다른 불탑들과는 달리 실내에 공간이 마련돼 예배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고구려의 목탑자리로는 평양 청암리 등 4곳이, 백제 때는 부여 금강사 절터 등 5곳이, 신라 때에는 동양 최대 규모였다는 황룡사 목탑 등 4곳에 목탑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목탑으로는 조선후기에 건립된 법주사 팔상전(국보 55호)이 유일하게 남아있다.

■ 전탑(磚塔)

〈삼국유사〉와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전탑을 봉안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시대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탑의 특징은 목탑이나 석탑과 형식은 동일하나 중국 전탑의 영향으로 옥개의 상하에 층단을 마련하고 감실을

■ 석탑(石塔)

전탑의 형식을 모방한 석탑. 우리나라에서는 전탑보다 석탑이 더 많이 유행했다. 그러나 탑재(塔材)를 구하거나 조립과정이 '용이하지 않은 특수성'으로 인해 부리를 내리지는 못하였다. 형태는 석재를 벽돌처럼 작게 가공해 전탑 모양으로 쌓아올린 유행과 일반적인 석탑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 표면은 전탑처럼 가공해 축조한 유형으로 나뉜다.

첫번째 유형으로는 경주 분황사 석탑(국보 30호)을 비롯해 재현 장막리 7층 석탑(보물 459호) 등 9기 정도가 있으며, 두번째 유형으로는 의성 탑리 5층 석탑 등 7기가 남아있다.



탑돌이는 탑을 돌며 부처님 공덕을 되새기는 의식이다. 사진은 해인사 탑돌이 장면.

■ 모전석탑(模塼石塔)

전탑의 형식을 모방한 석탑. 우리나라에서는 전탑보다 석탑이 더 많이 유행했다. 그러나 탑재(塔材)를 구하거나 조립과정이 '용이하지 않은 특수성'으로 인해 부리를 내리지는 못하였다. 형태는 석재를 벽돌처럼 작게 가공해 전탑 모양으로 쌓아올린 유행과 일반적인 석탑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면서 표면은 전탑처럼 가공해 축조한 유형으로 나뉜다.

첫번째 유형으로는 경주 분황사 석탑(국보 30호)을 비롯해 재현 장막리 7층 석탑(보물 459호) 등 9기 정도가 있으며, 두번째 유형으로는 의성 탑리 5층 석탑 등 7기가 남아있다.

■ 금동탑·청동탑·철탑

금동이나 청동, 철 등 금속제탑은 옥외에 설치해 예배하기보다 봉안하기 위해 만든 것이므로 일반적인 탑이라기 보다는 장엄물에 가깝다. 또한 사리를 담은 사리장엄구도 작은 탑의 모양을 한 경우가 많다.

높이 1.55m로 작은 석탑과 같은 크기의 고려시대 작품인 금동대탑(국보 213호)은 이같은 유형의 대표작으로 탑피는 물론 목조건축이나 조각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opia.com)

부도 스님사리나 유골 안치한 묘탑

스님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묘탑을 일컫는다. 부도는 다른 석조물과는 달리 부도에 따르는 탑비가 건립되어 있어 부도의 주인공과 그의 생애 및 행적 등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문화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로 간주된다.

우리나라에서 부도라는 용어가 승려의 사리탑을 가리키는 실례는 신라 하대부터 보이고 있다. 627~649년경에 원공법사의 부도를 세웠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우리나라가 부도를 건립한 것은 7세기 중반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본래 부도 건립은 법제론자들이 스승을 섬기는 극진한 마음에서 스승이 입적한 뒤 정성을 다해 세우는 것으로, 당나라에서 신종이 들어온 이후 9세기에 이르러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다. 부도는 각부의 정교하고 화려한 장식문양으로 불교조각의 극치를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석조미술품의 백미로 꼽힌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부도로는 신라 문성왕 6년(844년)에 건립된 흥법사염거화상탑(국보 104호)이 꼽힌다. 이밖에 주요부도로는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국보 59호)쌍봉사철감선사탑(국보 57호)정토사흥법국사실상탑(국보 102호)청룡사보각국사장해원용탑(국보 197호)흥법사진공대사탑(보물 365호)회암사지부도(보물 388호)연곡사서부도(보물 154호) 등이 있다.



가장 아름다운 부도로 평가 받는 쌍봉사철감선사탑.

청화큰스님 서울 초청 법회

아미타불 염불만일 정진으로 극락세계를 열어나가는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무량광 무량수 아미타 48대원으로 정토실현을 위하여, 금번 염불선으로 빛을 발하시는 청화큰스님을 모시는 자리를 마련하오니 불자님들의 수회동참바랍니다.



정토법회안내

- 일 시: 1998년 11월 7일(토) 오후3시
 - 장 소: 동산교육회관(안국동로터리)
 - 교통편: 전철3호선 안국역하차
 - 문 의: (02)732-1215~7
- | | |
|-----------|------------------|
| 10월11·18일 | 주명철교수(동국대) |
| 10월25일 | 전남 대원사 아의염불 수련법회 |
| 11월1일 | 강동군 교수(부산 동아대) |
| 11월7일 | 청화스님 초청법회 |
| 11월8일 | 효란스님 초청법회 |

全國念佛萬日會

110-170 서울 중로구 견지동 13번지 TEL: 02)732-1215~7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을 염(念)하면 누구나 극락왕생할 수 있다!



극락왕생을 위한 가장 손쉽고 공덕이 큰 수행법!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면 어떤 공덕이 있는가?
염불을 통해 극락왕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극락왕생할 수 있는가?
염불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현장부 역음 /120쪽/값 3500원

염불의 원류와 전개사

다양한 염불이 일어난 근원과 그 변화·발전의 과정, 그 각각의 공덕 등 염불의 사상·역사·실천적 측면을 이론적으로 규명
이태원 역/신국판 양장/값 25,000원

중국정토 교리사

중국에서의 정토 신앙자들과 논자들의 삶과 사상을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그 핵심 사상을 간추려 일목요연하게 정리
이태원 역/신국판 양장/값 20,000원

정토삼부경 개설

정토삼부경의 각 경전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총론, 경전의 핵심을 간추린 요지해석, 원문 및 번역·강설 등으로 구성된 정토신앙의 지침서
이태원 역/신국판 양장/값 14,000원

도시출판 온주사 서울시 중로구 청진동 6 TEL:720-9372~3 FAX:723-0646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